

1. 발표문은 토마스 레너드의 삶과 관련한 간략한 정리와 코치로서 활동 기간, 그가 개발한 코칭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코칭 초창기 유력한 코치의 생애사 연구는 코칭 분야가 학문적/실천적 확립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코치로서 활동 한 기간과 만들어 낸 성과(코칭프로그램 또는 저서)를 새롭게 해석하는 작업은 중요한 미래를 개척하는 밑거름이기에 필자의 연구 작업은 후학들에게 큰 본보기를 준다. 당연히 이런 시도는 살아 있는 많은 노장들은 예외로 하더라도 그들에게 영향을 준 사상가, 실천 활동가들, 코칭 형성에 배경이 된 실천 활동가이자 코치들에게도 연구의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타계한 로라 휘트워스, 티모시 골웨이 등이 그 예이다.

토마스 레너드의 노력과 활동이 없었다면 오늘날 현대 코칭과 같은 형식과 내용이 확립되기 쉽지 않았다는 것이 토론자의 생각이다. 특히 그 공로는 라이프 코칭 분야 확립과 1:1 코칭 확립이다.

토마스 레너드와 로라 휘트워스의 경쟁과 협력은 기존 미국 심리학계의 위계체계와 수퍼바이저들의 통제를 피해, 이들과 분리/독립되어(수퍼비전을 받지 않고), 심리치료가 아닌 코칭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확립했다. 특히 토마스 레너드는 1:1 코칭 대화 형식을 진전해 냈다. 아울러 특히 레너드에 의해 90년대 코치 양성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면, 코칭이 미국 각 주에서 심리치료 분야로 통제 받을 위기인 콜로라도 주 법원 판결 사태를 돌파할 코치들의 독자적 영향력 확립이 어려웠다고 본다. 또 토마스 레너드가 당시 대부분의 코치들이 선호 한 소그룹 방식의 접근, 기업 컨설턴트 활동에 개인면담을 결합한 방식의 접근과 독립해 라이프 코칭 영역과 1:1 코칭 확립을 위한 R&D작업의 성과가 없었다면 다른 조력 분야의 하위 파트너로 축소될 수 있었다고 본다.

2. 코칭 기원의 확장과 토마스 레너드 생존 전후

현대 코칭의 출현의 근원지로 1968년을 정점으로 전개 된 이른바 68혁명을 정면으로 다루지 않을 수 없다. 코칭은 이 같은 전 세계적인 혁명의 물결 안에서 ‘인간 잠재력 회복’ 운동이라는 별도의 문화운동 흐름과 기원이 연결된다. 이 흐름은 70년대 에살렌 연구소(미), 타비스톡 연구소(영) 등 진취적 집단의 노력은 인간 잠재력 회복운동-에르하르트에 의한 대규모 집단 인지훈련-소규모 집단 작업-90년대 토마스 레너드/로라 휘트워스 등의 코칭 확립/코칭조직 출현-2000년 세계 주요 대도시에서 코칭 비즈니스 동시출현의 흐름을 갖는다.

토마스 레너드의 생애에서 이 같은 60년대 미국의 반전 평화운동, 히피 문화운동, 비종교 영성운동 등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다양한 흐름 중 그가 속해 있던 인간 잠재력 회복 운동의 진원지인 에살렌 연구소에서 에르하르트, 티모시 골웨이를 필두로 한 코칭 개척자들과의 교류, 이후 기업 컨설팅 중심 코칭활동과 다른 길을 개척한 과정은 여러 갈래의 흐름의 관계와 상호 영향도 살펴 볼 과제다.

(* 기업교육과 그룹 작업, 스포츠 코칭 분야)

3. 코칭 프로그램의 의미와 중요성

토마스 레너드의 코칭 이론과 방법이 우리 코칭문화에 깊게 뿌리내리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우리나라에서 코칭 이론과 실천 연구 등이 학계가 중심이 되고, 이후 사회 전문분야로 정착되기 보다는 기업교육, 종교 단체 중심으로 보급되었다.(우리나라 학계에서는 87년 아동학 연구에서 시작, 97년 경영학 분야). 선 학계 후 시장 정착 경로가 불투명하다. 코칭 이론과 실천 연구와 전문가 양성의 주체가 순조롭게 발전하기 보다는 기업교육의 시장 상황과 연동해 외국 프로그램이 먼저 들어오는 구조가 큰 원인이다.

15가지 숙련^{Proficiencies}, 코치가 피해야 할 101가지 실수, How to coach anyone 등은 오늘날 1:1 코칭, 코칭관계 등에 오늘 날 까지 도 깊은 도움을 준다. 코칭 현장에서 제기된 경험과 이슈를 중심으로 해설한 그의 제안은 코칭 이론 성립의 독특성과 범위가 눈에 들어온다. 특히 그의 저서에서 보이는 특징은 첫째 코칭 임상 중심을 이론적 시도, 둘째 다른 전문분야와 의도적인 거리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특징이다. 세 번째 코칭 임상을 해석하는 근거 이론의 다양성, 네 번째 일대일 코칭 관계를 전제로 한 연구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다. 이는 티모시 골웨이, 로라 휘트워스의 작업과 결을 달리한다. 또 오늘날 일대일 코칭 관련 기술과 테크닉 발전의 모판이 된다.

(*심리치료 분야와의 거리두기, 비종교 영성에 대한 관심, IAC 창립, 일대일 코칭 역량에 대한 강조.)

4. 코칭 미래에 대한 제언 검토

오늘날 현대 코칭이 지금의 모습으로 완성 된지 한 세대도 지나지 않은 젊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자칫 '대가'연 하는 풍조, 자격증 중심의 양성과정을 극복하는 것은 코칭 학문의 융복합적 발전이 관건이다. 코칭 전문 연구자, 실천 연구자들에 의한 코칭 사례 분석과 코멘트 활동을 통해 임상을 이끌어가는 실천 학문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해외 연구 동향을 볼 때 코칭분야는 분과학문 전반으로 확대되어 새로운 연구 확산되고 있다. 철학과 정신분석, 교육학, 신경과학 분야에 근거하고, 코칭 임상의 경험 연구와 결합되어 많은 연구 논문이 양산되고 있다. 심지어 코칭 '대화'의 원형적 근거를 정의 행위 의무의 관점에서 개인 성장에 초점을 맞춘 그리스 프로트랩시스로 확대하고 있다.

코칭은 목표 달성이나 성찰 중심을 넘어 인간성 회복과 성숙성을 향한 대화로 정초하는 움직임은 교육모델, 치료모델이 아닌 인간 성숙모델로 구성하고 있으며, 개인 개발에 기초한 사회적 변화를 위한 코칭으로 연구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코칭은 조직의 리더십 개발 교육 시장, 자격증 열풍에 일조하는 코칭 여건의 협소성을 넘어 삶의 우여곡절이 주는 고통에서 벗어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잠재력을 현실화 하는 조력분야로 거듭나야 한다.